

# 雪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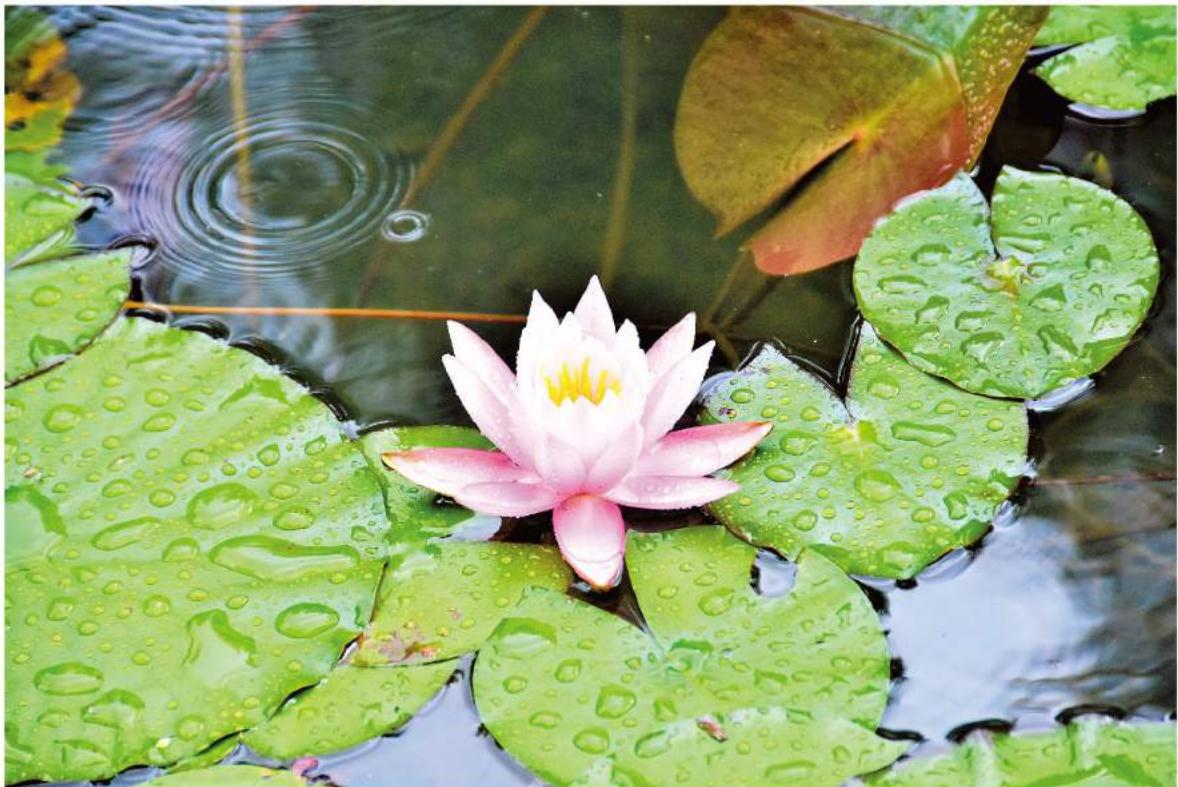
불기 2566년

여름호

통권 제160호

雪門寺增伽大學





## 구름문을 펼치다

- ▣ 단비가 촉촉이 내려 청정하고 푸르러지이다! / 우송 대교과
- ▣ 잎 무성한 여름 나무처럼 못 존재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가는 우리 / 심광 대교과
- ▣ 온 도량에 정량한 법우法雨가 늘 함께하기를… \_/\_ 자우 대교과
- ▣ 새벽 대종소리 높은 호거산을 감싸고, 곳곳마다 회주스님 자비, 처진 소나무를 품으시네 / 정연下 사교과
- ▣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심은 씨앗에 물을 듬뿍 주자! / 원녕 사교과
- ▣ 마음에 머무는 것이 비단 더위뿐일까, 소나기로도 부족할 그곳에 샘물 하나 솟아났으면… / 대겸 사교과
- ▣ 이것 또한 나의 수행이다. 찾아라, 사유하라, 끝은 없지만 성장이 보인다. / 해탈향 사집과
- ▣ '또르륵 딱, 또르륵 딱' 목탁소리 닮은 장대비가 그리운 여름입니다. / 선혜 사집과
- ▣ 운문사의 비는 멈췄지만 학인들의 마음엔 촉촉한 단비가 내리기를~ / 법일 사집과
- ▣ 여름, 푸르름이 가득한 운문사. 부처님의 그늘 아래 숨. 쉼이 되네! / 혜명 사미니과
- ▣ 여름 내 땅볕, 불볕 속에붉게 익어가는 치문반!! / 선재 사미니과

# 雲門

## 목차



〈 표지설명 : 보리수 꽃 〉

- |                   |   |
|-------------------|---|
| 02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죽림현            | 물과 같은 운문 화합 명성                            |
| 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컴퓨터 초기화면 은광                               |
| 08 교수논단           | 대한불교조계종 이부승수계제도二部僧受戒制度의 정착과 의의 ① 일진       |
| 13 想              | 법비(法雨) 선혜                                 |
| 14 학인논단           | 법화칠유法華七喻 ② 경문                             |
| 18 외부기고 1         | 아름다운 날들 조미향                               |
| 22 선지식탐방          | 답이 없이 답을 찾는 길<br>- 포교원장 범해 스님 탐방기 - 정연 上  |
| 27 풍경소리           | 피안조彼岸鳥 우현                                 |
| 28 외부기고 2         | 꿈에 나투신 나반존자님 보문심                          |
| 30 수행의 두레박 하나     | 화두, 오늘의 마음 경운                             |
| 32 수행의 두레박 둘      | 진심으로 진실하게 공립                              |
| 34 운문, 운문인        | 선열禪悅로 시원한 운문의 여름 편집부                      |
| 36 자유기고 1         |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진하                     |
| 38 자유기고 2         | 산딸기가 전해 준 부처님 자비 삼우                       |
| 40 차례법문           |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륜                             |
| 42 운문만행           | 남산 돌부처 자비의 들숨, 날숨 서운                      |
| 44 화랑동산           | 〈AI, 일상으로의 초대〉<br>동련 전국 지도자 연수를 다녀와서… 교화부 |
| 46 이 한 권의 책       | 『맨발의 평화 운동가 '비노바 바베'』를 읽고 동암              |
| 48 운문논평           | 모든 중생은 우리의 다생부모多生父母이다 편집부                 |
| 50 운문소식           |   |
| 51 등불             |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                             |

## 물과 같은 운문 화합

명성 / 운문사 회주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수업

봄철의 「봄바람과 코로나와 사과나무, 그리고 戒」에 이어 이번 여름호에는 계율戒律과 화합和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보려 합니다. ‘수행의 길에 있어서 계로써 몸을 단속하여 오염이 없고, 선정으로 마음을 맑혀 혼란하지 않으면 마치 써례질을 잘 하여 마친 논밭과 같아서 단엄하고 고요하여 지혜의 종자를 심어 무상정각無上正覺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수행의 기본적인 실천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승가僧伽입니다. 승가라는 용어에는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뜻 외에 의지처, 공유와 무소유, 평등과 자율, 육화와 참회를 통한 청정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승가 운영에 있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이념은 화합에 있으므로 ‘화합대중和合大衆’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합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해 가야 할까요? 율장律藏에서는 현전승가의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여, 경과 율에 근거하여 어법하게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단합된 결론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것을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羯磨’라고 합니다. 전원 참석하고 모두에게 찬반을 물어 결정하는 현전승가의 평등정신은 스스로 ‘승가의 주인의식’을 갖게 하므로 임제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사상은 이미 ‘화합승가의 핵심적 정신’ 속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정승가의 육화합六和合의 덕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는 몸이 화합해서 함께 머무르는 신화동주身和同住, 둘째는 입이 화합해서 다툼이 없는 구화무쟁口和無諍, 셋째는 서로의 뜻이 화합해 함께 즐거워하는 의화동열意和同悅, 넷째는 견해가 화합해서 이해를 함께하는 견화동해見和同解, 다섯째는 계율을 함께 준수하는 계화동준戒和同遵이며 끝으로 이양利養을 나눔에 균등하게 하는 이화동균리和同均입니다. 이와 같은 승가정신으로 차별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정의가 살아나는 대승보살행과 육화정신으로 세상을 평화롭고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현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의 한 양식樣式입니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世態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는 동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사고와 견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식체계의 전환paradigm shift’이었습니다. 승가교육이나 포교현장, 또 실제 수행 현장과 불교문화 저변에서 예외 없이 서열과 권위에서 벗어나 평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경직된 폐단을 일소하고 승가의 수평적 화합을 강화시키는 무척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다만 선행자先行者로서 염려스러운 것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곳의 정체성과 스스로 머무르고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한 애정과 신념만큼은 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제자 아난이 “세존이시여 우정은 도에 이르는 절반이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아난이여! 우정은 도에 이르는 전부이니라.”라고 말씀 하십니다. 운문사 도량의 학인 여러분들이 육화합의 벗들과 함께 수행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스스로가 승가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달아가되 일체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맹세로 굳건하게 거듭나기를 당부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장무애하게 가을 문턱에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

## 컴퓨터 초기화면

은광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 1막 2012년 봄

딸랑딸랑 딸랑딸랑 요령소리에 맞추어 대중스님들은 ‘법성원음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法性圓融無二相 諸法不動本來寂 無名無相絕一切 ~’ ~ 법성계를 외우는 염불소리가 우렁차고 목탁소리는 운율에 맞춰 커지고 작아지기를 반복하며 소대燒臺를 향해 가고 있다. 분명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최고의 시詩, 최고의 가르침이 요령과 목탁소리를 따라 바람에 훌날리듯 펼쳐진다. 또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간 것이다.

재의식의 최종 설법은 이러하다. ‘일성휘파금성벽 단향불전칠보산一聲揮破金城壁 但向佛前七寶山 나무 환희장마니보적불 나무 원만장보살마하살 나무 회향장보살마하살’

“이 하나의 소리로 철통같은 벽을 무너뜨리고 부디 부처님이 계신 칠보산을 향해 가십시오.”

물질로 이루어졌던 고단했던 육신을 벗어버리면 중중무진으로 펼쳐진 다채로운 세계 중 부처님이 계신 칠보산을 찾아 가는 일이 이 生生보다 더 쉬운 것일까?

삶과 죽음, 너와 나, 중생과 부처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무이無二세계, 부동不動세계로 가십시오. 딸랑딸랑 요령소리는 그를 일깨우고 있다.

### 2막 1986년 비 내리는 겨울

조그마한 찻집은 커피 향으로 가득하고 난로 위 차관에서는 물이 팔팔 끓고 있다. 까만 옷을 입고 도무지 말이 없는 멋진 여인은 아마도 찻집 주인일 것이다. 그녀는 LP판을 바꾸고 난로 옆에 앉아 다시 뜨개질을 하고 있다. 음악이 시작된다.

낄낄거리는 젊은이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시종일관 떠들고 있을 뿐, 음악은 저 혼자 무심히 흘러간다.

### 3막 2022년 여름

부재不在(더 이상 이곳에 없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음)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그를 떠나보내기 위한 얼마간의 시간을 요구한다. 그리움, 아쉬움, 슬픔, 애달픔, 서러움, 홀가분함, 막막함, 후회 등등 다양한 감정으로 웃었다, 울었다, 다짐했다, 무너졌다, 노래를 불렀다. 온갖 변덕을 일삼으며 애쓰는 그런 시간들 말이다. 그의 부재를 통해 나의 죽음을 아주 깊이 있게 마주하고 싶어 하며 죽음을 호출 하지만 그렇게 호출된 죽음은 전혀 힘이 없다.

하지만 그가 당면해야 했던 죽음은 얼마나 처절했을 것인가. 그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여 자기 삶의 여성으로 맞이하기까지의 엄청난 고독을 여기서 있는 나는 알 수가 없다.

진한 고통과 며칠을 함께 숨을 쉬다 섬광처럼 다가오는 깨달음으로 나는 이제 홀홀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 세상은 아무 일 없이 태양은 찬란히 빛나고 있다.

1986년 찻집에서 까만 옷을 입은 여인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시작되었던 바로 그 노래가 오늘 블루투스에 연결된 이동용 스피커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흐른다. 음악은 누가 듣고 있는 것인가? 그 음악은 어떻게 공간이동을 한 것인가?

### 4막 一時

'단향불전칠보산, 다만 부처님 계신 칠보산을 향하여 가소서'

딸랑딸랑 스님의 염불소리 그 한 구절만을 오로지 의지하여 칠보산을 찾아 나서니 이 무슨 신비로운 일인가. 그곳에서 금강경 법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와우~ 어찌 이런 일이. 여기 이곳은 시간이 실재하지 않는다. 아! 망념이 없는 곳이로구나.' 다만 금강경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카드가 있어야 한다. 대승의 마음, 최상승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이미 부처임을 확고부동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출입가능하다<sup>1)</sup>. 다행히 그는 그의 좌석을 배정받은 듯하다.

부처님은 발을 씻고 부좌이좌敷座而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1250인의 제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기다리고 있다. 수보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부처님께 여쭐 것이고,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사바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리라.

이제 그는 그곳 칠보산에서 법문을 들을 것이고, 우리는 여기 금당에서 금강경을 독송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종횡무진 하는 아무런 맥락 없는 기억과 상념들, 물에 비친 달처럼 분명히 보이고 들리지만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위력을 발휘하면, 컴퓨터 화면을 켜기 전부터 이미 여기는 가상세계며 모든 것은 꿈속이 된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스님은 저 먼 과거부터 그렇게 딸랑딸랑 요령을 혼들고 계셨던 것인가. ●

1) 「是經有不可思議, 不可稱量, 無邊功德. 如來爲發大乘者說, 為發最上乘者說.」[대정장][0750c12]

# 대한불교조계종 이부승수 계제도二部僧受戒制度의 정착과 의의 ①

일진 / 운문사승가대학 율주

## 목 차

- I. 머리말
- II. 이부승수계의 기원
  - 1. 비구니 수계의 기원
  - 2. 이부승수계의 전래
- III. 대한불교조계종의 이부승수계제도
  - 1. 이부승수계의 복원
  - 2. 조계종의 비구니수계 과정
- IV. 한국비구니의 위상과 법계명성의 역할
- V. 맷음말

## I. 머리말

'승중즉법중僧重則法重하고 승경즉법경僧輕則法輕'이라는 말이 있다. 불법이 아무리 수승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교리 스스로가 진파되지는 못한다. 불보와 법보, 여기에 승보를 더하여 삼보로 받드는 것은 불법의 전파와 정법의 유통이라는 일대

사를 감당하고 실천하는 승가공동체의 형성이 불교가 자리하는데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다.

승보의 탄생은 삼장 중 윤장에 바탕한 수계에 의하여 성립되는데, 수계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분한과 자격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윤장을 근거로 하여 받는 수계의 종류는 비구계, 비구니계, 식차마나니계, 사미계, 사미니계와 보살계 등이 있다. 여기서 비구니 수계와 관련된 것은 식차마나니계, 비구니계이다.

현 대한불교조계종의 비구니 구족계 수계는 사분율에 의한 이부승수계제도를 따르고 있다. 삼사칠중의 비구계단의 백사갈마에 의한 일중一重수계 방식을 따르는 비구승과 달리 비구니는 비구니 별 소계단의 수계갈마를 거쳐 비구 삼사칠중의 본소계단의 수계의식을 거쳐야 하는 양중兩重수계방식을 따른다. 이것을 이부승수계제도라고 한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 제정된 팔경법과 사분율을 비롯한 거의 모든 윤장에 근거한 수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비구니인 대애도의 팔경법에 의한 구족계 수계로부터 스리랑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래된 비구니 구족계 수계에 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윤장에 따른 수계와 승단의 성립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고 기록들조차 매우 희미한 것들이다.

한국불교사의 암흑기인 조선과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거의 궤멸 직전에 이른 청정승가의 맥은 불교 정화와 범난이라는 안팎의 원인에 의하여 다시금 새롭게 이어지게 된다. 1981년 단일계단이 정비되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수계의식이 통일되었으며, 비구니 수계도 이부승수계제도로서 복원되었다. 스리랑카나 미얀마 등, 남방 불교권에서 여전히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비구니 승단의 현실을 볼 때 이부승수계제도의 부활은 한국불교사에 큰 획을 그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는 전법수계의 원력을 가진 자운 윤사의 공헌이 지대하였으며, 여러 비구니 원로스님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

본고에서는 비구니 수계가 양중수계방식이 된 기원을 살펴보고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부승수계가 복원된 상황과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부승수계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구니 윤사 양성과 교육을 위해 공헌한 비구니스님들의 노력을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자운 윤사의 계맥을 이었으며, 현재에도 비구니 윤사 양성 교육 현장에 있는 법계명성 스님의 역할을 간략히 조명해 보고자 한다.

정법의 호지와 유통은 불교 승단에 달려 있다 는 점과 승단의 성립은 율장에 근거한 여법한 수계 의식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조계종을 존립시키는 승보의 수계의식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중차대한 일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II. 이부승수계의 기원

### 1. 비구니 수계의 기원

불교교단을 승가 혹은 승단이라고 부르는데 승가는 일반적으로 비구와 비구니 교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출가오종出家五衆이라 하여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를 포함하여 말하기도 한다.

불보, 법보와 함께 불교를 구성하는 삼보에 속하는 승가는 부처님의 성도 후 초전법륜을 통한 다섯 비구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때 출가의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계의식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을 것이다. '선래 비구여!'라는 말에 의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이 떨어지고 가사가 수해지며 출가승이 되었다는 것이 첫 오비구의 구족계 수계였으니 말이다. 비구승단의 태동과 구성도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형성되어 체계적이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승가로 발전해간 것으로 보인다.<sup>1)</sup>

이렇게 비구승단이 체계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도 비구니의 출가가 허락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사분율』, 『비구니 진도』의 기록을 보면, 최초의 비구니로 알려진 마하파사파제는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부처님께 세 번이나 요청하였으나 세 번 다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 후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성의 출가를 허락해 줄 것을 간청 드렸으나 다시 거절하셨다고 한다.

그러자 아난은 부처님께 '여성도 불법 중에 출가하여 계를 받으면 수다원과 내지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를 여쭈었고 부처님께서 얻을 수 있다고 답하시자 아난은 다시 여성의 출가를 청하였으며 이때 여덟 가지 법(팔경법)을 제정하시면서 이 팔경법을 수지하는 조건으로 출가를 허락하셨다.<sup>2)</sup> 대애도 비구니의 출가와 이어 석가족 500명의 여인이 출가하였고 이로써 비구니 교단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대애도 비구니의 최초 출가가 이루어지고 비구니 교단이 형성된 것은 대체로 부처님 성도 후 대략 20년경이라고 추정하고 있다.<sup>3)</sup> 비구승가에 비해 뒤늦게 형성된 비구니승가는 제반 사항 모두를 비구승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최초의 구족계라고 할 수 있는 팔경법의 내용에 비구니 수계에

1) 백도수, 「초기불교비구니승가와 비구니」, 『한국비구니승가의 역사와 활동』, 한국비구니연구소, 2010

2) 『사분율』 권8 『대정장』 22)

3) 해주, 「비구니교단의 성립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제11집, 한국불교학회, 1986

관한 규정도 비구승에 의한 승인을 명시하고 있다.

비구 삼사칠중 앞에서 백사갈마를 통하여 구족계를 받는 비구승과는 달리, 비구니계를 받을 식차마나니는 비구니 삼사칠중으로 구성된 비구니 자체의 별소계단에서 수계식을 한 다음, 하룻밤을 지내지 않고 바로 다시 비구의 치소로 가서 비구로 구성된 삼사칠중 앞에서 이부승니가 함께 하는 20명의 스님으로부터 인증적인 수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이부승수계라고 한다.<sup>4)</sup>

이러한 이부승제도는 십대제자 중 지계제일인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비구니계는 이부승지二部僧持입니까? 아니면 일부승지一部僧持입니까?’라고 묻자 부처님께서 ‘이부승지’라고 답하는 바람에 이부승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여 당시 비구니들이 우바리 존자를 비난하고 미워했다고 한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이부승수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초의 비구니가 출가할 당시 비구니교단이 있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초의 비구니 수계의식 상황으로 본다면, 인도 초기불교의 비구니 구족계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팔경계에 의한 마하파사파제의 수계,  
둘째, 나머지 석가족 여성의 비구들만에 의한  
구족계 수계,  
셋째, 비구니 대중이 성립한 이후 이부승가에

의한 구족계 수계이다.<sup>6)</sup>

비구니 팔경법의 수지와 실천을 약속함으로써 비구니가 된 마하파사파제의 경우는 팔경법 자체가 비구니 수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출가한 500명의 석가족 여성들의 구족계 수계는 비구들만에 의해 이루어졌고,<sup>7)</sup> 그 이후 이부승단에 의한 비구니 구족계 수계 전통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구니가 비구승에게 수계 받아야 하는 조항은 비구니 팔경법에 명시되어 있다. 근거가 되는 팔경법의 조항은 각 읊장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조계종이 따르고 있는 『사분율』에 나오는 팔경법의 제4경법散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식차마나가 학계學戒를 마치면 비구승을 쫓아 대계大戒 받기를 청해야 한다.<sup>8)</sup>

이 외에도 『구담미경』, 『십송율』 등에도 비구니는 비구에게서 구족계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오분율』이나 『마하승기율』 팔경법의 경우 이부승중에 의한 수계의 내용이 보인다.<sup>9)</sup>

식차마나가 2년간 계를 배워 마치면 마땅히 이부승二部僧 중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sup>10)</sup> 2년간 계를 배웠으면 이부승二部衆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sup>11)</sup>

4) 가산지관, 『한국불교계율전통』,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5

5) 『오분율』 권18 (『대정장』 22)

6) Shobha Rani Dash[2002: 71~72], : 벽공, 「동아시아 비구니계을 전래와 수계의 변천」, 『불교연구』 제41집, 재인용

7) 최초의 비구니계라고 할 수 있는 팔경계의 여섯 번째 제6경법은 식차마나에 대한 내용이지만, 대애도를 비롯한 석가족 여성들이 식차마나 기간을 지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 때까지 현재와 같은 비구니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 현재의 구족계와는 다른 형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사분율』 비구니건도의 八盡形壽不可過法 제4, 『대정장』 22

9)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전해주 앞의 논문 참조

10) 『오분율』, 『대정장』 22

11) 『마하승기율』, 『대정장』 22

최초의 비구니에게 준 팔경법에 이부승에 의한 수계를 명시한 것이 약간의 의문점이 남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 문제는 차치하고 논지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이부승수계 제도의 기원이 부처님 당시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이부승수계가 명시되어 있는 계목으로는 『사분율』의 경우 비구니계 바일제 제139조를 볼 수 있다.

(계목戒目) 계를 일려주고 나서 하루를 지난 다음 비구 대중에게 계를 받으러 가지 말라. (수숙왕승계授宿往僧戒)

(계상戒相) 만약 비구니가 남에게 비구니계를 일려주고, 하룻밤을 지내고서 비구 대중에 가서 대계大戒를 받으면 바일제니라.<sup>12)</sup>

이러한 계목은 『사분율』에서 뿐만 아니라 『오분율』 바일제법 제119조, 『십송율』 바일제법 제127조, 『근본설일체유부비구니비나야』 바일제법 제125조, 『마하승기율』 바일제법 제107조 등에서도 보인다.<sup>13)</sup>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부승수계가 정착되기 전에 비구니는 비구에게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비구들이 직접 비구니 구족계 수계자에게 차법遮法<sup>14)</sup>의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다가, 비구니 수계자가 수줍고 두려움으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부처님께서 비구니는 일차적으로 비구니교단에서 구족계를 받

고 나서 비구 교단에서 최종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고 한다.<sup>15)</sup>

이렇게 제정된 비구니수계의식은 스리랑카를 거쳐 중국을 통하여 한국으로 전래되게 된다.

## 2. 이부승수계의 전래

불교가 인도에서 여러 나라로 전파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전파된 각 나라에 자체적인 승단을 형성하는 일이다.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이 승가 대중을 탄생시키는 계단의 설립과 정비이다.

기원전 3세기 경 인도의 아쇼카 왕은 주변 국가로 불법 전도사를 파견할 때 반드시 지율자持律者를 포함한 5명의 승려를 주축으로 구성하였다고 한다.<sup>16)</sup> 구족계 의식은 일정한 경계 안에 열 명의 비구가 모여 수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방의 경우에는 10명의 비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율자, 즉 율사를 포함한 5명으로 수계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옛날의 교통수단으로 열 명의 승려가 한꺼번에 머나먼 외국으로 함께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비구니의 경우 양중수계의 율법을 지켜 여법한 비구니계를 수지하기 위해서는 비구니 윤사의 이동이 필수적인 만큼 더욱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중국의 경우 한나라 명제 영평10년(67)에 불교

12) 『四分比丘尼戒本』, (『대정장』 22, p1038上) '若比丘尼 與人受具足戒已 經宿方往 比丘僧中 與人受具足戒者 波逸提'

13) 해주, 「대한불교조계종의 이부승수계와 사분율」, 『한국사상과 문화』 제39집, 2007

14) 차법遮法이란 승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즉 수계할 때의 자격 제한 조건을 말한다. 초기율장에 근거한 비구니의 차법은 비구보다 많은 24가지로 여성 신체 특유의 이상성을 들고 있는 항목들이 차법에 들어 있다. (사사기 시즈카 지음, 원영 옮김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 민족사, 2007)

15) 이자량, 「초기불교의 계단설치와 이부승제」, 『근대한국불교을풍전작과 자운대율사』, 자운문화회, 2005.

16) 이자량, 「조계종단 계단의 역사 및 성격」, 『불교연구』 42집, 2015.

가 전래된 이후 환제까지 약 100여 년 동안에도 사미·비구·비구니계를 받을 기회가 형성되지 못하고 다만 삼귀의·오계·십계 등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중국에서 계단의 정비와 수계가 이루어진 것은 430년 구나발마求那跋摩 삼장이 남림사에서 계단을 설립하고 비구 비구니에게 수계한 것이 처음이다. 중국에 비구니수계가 여법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는 『비구니전』의 기록을 통하여 엿볼 수 있으며, 청나라 서옥書玉이 지은 『이부승수계의식연기二部僧授戒儀式緣起』가 『兜속장경』에 수록되어 있어 이부승수계의식 자료로서 참고할 만하다.<sup>17)</sup>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부승수계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다. 고구려에 최초로 불교가 전래되었으나 비구니가 언제 탄생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최초의 일본 비구니 스승이 고구려계 비구니였다는 일본 자료를 통하여 고구려에 비구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sup>18)</sup> 비구니 교단과 관련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국가는 백제인데, 이것도 국내 자료가 아닌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등장할 뿐이다. 위덕왕 24년(577) 일본에 울사 등과 함께 비구니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백제에는 이미 비구니 교단이 있었다고 보여진다.<sup>19)</sup> 또한 일본에 전하는 『원홍사가람연기』에 위덕왕 34년(587) 백제의 사신이 비구니계 수계의식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

비구니들의 수계법이란 먼저 니사尼師에서 10

니사를 청해 본계를 받고 난 다음에 곧 법사사法師寺로 가서 10법사를 청해 먼저 10니사와 합쳐 20사로부터 본계를 받는다. 그러나 이 나라(일본)에는 니사만 있고 법사사와 법사가 없으므로 만약에 비구니들이 법대로 수계하려면 법사를 세우고 백제국의 송니들을 초청해서 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sup>20)</sup>

이 기록은 백제에서 비구니의 수계가 비구와 비구니 양중수계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신라의 경우, 진평왕 대에 진나라 유학을 하고 돌아온 지명 비구니의 기록으로써 『사분율』에 의한 구족계 수계가 시행되었으리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야말로 추측일 뿐 수계의식이 제도화 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sup>21)</sup>

그 후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은 기록으로 고려 충숙왕 2년(1315)에 김변(金月井)의 처 허씨가 출가하였는데 그는 출가하여 열 명의 계사들 앞에서 정식으로 수계를 받고 성효性燒라는 법명을 받았다고 전해진다.<sup>22)</sup>

이러한 이부승수계가 한동안 이어졌으리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되었고 그리고 언제 수계 전통이 단절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없다. ●

〈다음 호에 계속〉

17) 가산지관, 앞의 책

18) 勝浦令子(1999) : 벽공, 재인용

19) 『日本書紀』 권20 : 벽공, 재인용

20) 「元興寺伽藍緣起」「日本佛教事典」 : 김영태, 「백제불교사상연구」, 동국대출판부, 1986. 재인용

21) 국사편찬위원회 [2007:40] : 이자랑 [2015] 재인용

22) 김영미, 「한국비구니승가의 태동과 전개」, 「한국비구니승가의 역사와 활동」, 한국비구니연구소, 2010



법비는 선혜가  
언론이나 가족이나  
주변사람이나 헌금이나  
모두에게 선혜를 넣어  
주면 된다.

## 법화칠유法華七喻 ②

경문 / 사교과

### 목 차

1. 이런저런 이야기
2. 법화칠유
3. 마무리하는 말

음 아버지를 만나 놀랐던 때

제분장가 아함시除糞定價 阿含時 : 근기에 맞추어 방편으로 뜻을 치우고 삶을 받는 것

출입자재 방등시出入自在 方等時 : 여러 해가 지나서 그 집에서 출입이 자유로운 때

영지보물 반야시領知寶物 般若時 : 점차로 혼집안 살림을 알게 되었을 때

전부가업 법화열반시傳付家業 法華涅槃時 :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시키는 때

	상 징	비 유	오시五時
『법화경法華經』	부처님	장 자	화엄시
『신해품信解品』	중 생	빈궁한 아들	
	성 문	뚱치는 일	아함시
	연 각	창고 관리	방등시
	보 살	장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	반야시
	일불승	친자임을 알리고 재산 상속	법화시

### 3) 운우의 비유 「제5 약초유풀」

- 삼천대천세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가 있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다. 그곳에 구름이 두루 덮어 동시에 비가 고르게 내려 숲과 약초들이 제각각 비를 맞는다. 거대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똑같이 맞지만 종자들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다르다. 비록 비에는 차별 없지만 초목들에게는 각각 받아들이는 차별이 있는 것과 같다.

- 부처님께서는 한 비[一雨]에 적셔지는 삼초 이목三草二木을 들어 밝힌다. 부처님의 법을 듣는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따라 약초藥草를 나눈다. 인人, 천天, 전륜성왕, 제석천왕, 범천왕은 작은 약초 [小草]로, 무루법無漏法과 육신통을 중득한 성문聲聞, 연각緣覺을 중간 약초[中草]로, 불도를 구하여

■ 장자인 아버지는 부처님이며, 빈궁한 아들은 일반 중생이며, 뚱거름을 치는 일은 성문승에, 창고를 관리하는 것은 연각승, 재산을 도맡은 것은 보살승이며, 친자임을 알리고 가업을 잇도록 하는 것은 일불승—佛乘에 비유한 것이다. 장자가 궁자에게 방편을 사용하여 서서히 그를 믿고 이해하도록 하여 일불승으로 이끈 것이다.

• 장자궁자의 비유에서의 오시교판  
궁자경의 화엄시窮子驚愕 華嚴時 : 아들이 처

정진과 선정을 행하는 자들을 최상의 약초[上草]라 한다.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에 번뇌를 통달하여 깨닫고 가장 높은 가르침을 구하는 통교보살通交菩薩을 작은 나무[小樹]라고 하고, 불퇴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신통력으로 무량 억 백천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마하살인 별교보살別教菩薩을 큰 나무[大樹]에 각각 비유한 것이다.

◆ 일시에 내리는 큰비는 부처님의 교법을, 고르게 내리는 것은 평등함을 나타내며, 큰 약초·중간 약초·작은 약초는 삼승三乘을, 큰 나무와 작은 나무는 대승과 소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우雲雨의 비유는 마하가섭 등의 성문제자들이 '장자궁자長子窮子'의 비유에서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자각을 표현한 것에 대하여, 세존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깨달음에 이른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한 인증으로서 차별과 평등에 대한 이치를 설명하신 것이다. 부처의 자비는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지만 다양한 생각과 근기를 지닌 중생들은 자기의 그릇만큼 그 법우法雨를 받아들여 성장하는 것이다.

교법	비유	상징
부처님의 교법	구름과 비	차별과 평등에 대한 부처님 법문
인人, 천天, 전륜성왕, 제석천왕, 범천왕	작은 약초	삼승
성문, 연각	중간 약초	
정진, 선정을 실천하는 자	최상의 약초	
통교의 보살	작은 나무	소승
별교의 보살	큰 나무	대승

#### 4) 화성化城의 비유 「제7 화성유품」

● 5백 유순(五百由旬, 약 3,500km)의 혐난하고 먼 길을 보물을 찾아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

다. 그 무리 속에 지혜롭고 총명한 안내자가 있었다. 여행 도중 피로와 두려움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안내자는 3백 유순을 지날 때쯤 신통력으로 만든 성城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한 후 환幻으로 만든 성을 없애고 보물이 있는 진짜 목적지인 바다에 도달하게 한다.

◆ 총명한 안내자는 부처님이며 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화성化城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궁극의 진리인 일불승인 보처寶處로 이끌기 위한 방편의 성이다. 왜냐하면 여러 보살과 성문들은 이승으로 열반을 얻지 못하며 다만 일불승으로만 열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문經文	비유	상징	교승教承
부처님	길 안내자	근기와 상황 설법	대기설법 對機說法
사바세계	변화한 성 (化城)	삼승, 방편교	권교權教
불성佛城	보물이 있는 곳(寶處)	일불승	실교實教

#### 5) 의주衣珠의 비유 「제8 오백제자수기품」

● 가난한 어떤 사람이 부유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 부유한 친구는 볼 일이 생겨 가난한 친구의 옷 속에 보배구슬을 넣어 주고 떠난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옷과 먹을 음식을 구하며, 빙궁한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부유한 친구를 다시 만나 옷 속에 보주를 넣어 준 것을 알게 되어 곤궁한 생활에서 벗어난다.

■ 부호인 친구는 부처님을 비유하고, 빙궁한 친구는 중생을, 술에 취함은 무명無明 속에서 번뇌에 빠짐을, 보주가 옷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빙궁한 생활을 함은 성문과 연각의 이승二乘에 만족한

상태를 비유한 것이며, 옷 속의 보주가 있음을 알게 됨은 일불승에 비유한 것이다.

◆ 친구를 다시 만나 자신의 옷 속에 보주가 있음을 안다는 것은 중생에게 이미 보주인 불성이 있으므로 일불승一佛乘을 깨달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 징	비 유
부처님	부유한 친구
중 생	빈궁한 친구
무명 속에서 번뇌에 빠짐	술에 취함
성문, 연각	빈궁한 생활
불성 회복, 일불승	옷 속의 보주를 찾음

◆ 법화경은 40년의 설법을 집약한 부처님 정수리의 보배와 같은 것이다. 비유하면 전륜성왕이 상투 속 귀중한 보배 구슬을 모든 마를 격퇴시킨 큰 공을 세운 자에게 비로소 내어주는 것과 같이 가장 깊고 심오한 경전을 최상의 수행자들에게 나중에 전해 주신 것이다.

상 징	비 유
부처님	전륜성왕
마구니	작은 나라의 왕들
수 행	전쟁
삼 승	공에 따른 상상
법화경	최고의 상상, 명주

#### 6) 계주寶珠의 비유 「제14 안락행품」

● 전륜성왕이 사천하를 통일하려 할 때 작은 나라의 왕들이 명령을 어기면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고 공이 있는 자들에게 상상을 준다. 논밭 · 집 · 토지 · 의복 · 장신구 · 여러 가지 보석들을 주지만, 왕의 상투 속에 있는 밝은 구슬[明珠]만은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구슬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륜성왕은 궁극의 큰 공이 있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보주寶珠를 준다.

■ 전륜성왕은 부처님을 상징하며, 작은 나라의 왕들은 오음마五陰魔, 번뇌마煩惱魔, 사마死魔를 상징한다. 전쟁은 수행을 의미하고, 상상은 삼승의 방편설을, 상투 속의 명주明珠는 법화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번뇌 망상을 다스리고 수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 법문을 설해 주셨는데, 구경究竟에 마지막으로 일체지혜一切智慧에 오르게 하는 최상의 공덕경인 법화경을 설해 주시는 것이다.

#### 7) 의사의 비유 「제16 여래수량품」

● 지혜가 총명하고 약을 잘 만드는 의사가 있었다. 그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의사가 타국으로 여행을 하는 동안 자식들이 독약을 마시고 꾀로워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의 고통을 보고 여러 가지 약초를 제조하여 색깔과 향과 맛을 잘 갖춘 해독약을 자식들에게 주었으나 본심을 잃지 않은 자식들은 해독약을 복용하고 치유할 수 있었지만 독이 깊어 본심을 잃은 자식들은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방편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신이 죽었다고 자식들에게 알렸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자식들은 슬퍼하며 본래의 마음을 되찾아서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 의사는 부처님을 상징하며 자식들은 중생이다. 독약이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三毒을 의미하며 여기에 취해 삼계를 윤회한다. 색 · 향 · 미色香味를 잘 섞은 해독약은 계 · 정 · 혜戒定慧 삼학三學을 말한다. 그러나 삼학三學을 좋

아하지 않는 중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교화하기 위한 마지막 자비심으로 거짓 죽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을 ‘방편열반方便涅槃’이라 한다. 다양한 방편을 통해 중생을 일승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 부처님께서는 “여래의 수명은 영원하며 성불한 지도 이미 구원겁이 지났으나, 여래가 현세에 성불하여 열반에 드는 것을 보인 것은 중생 제도의 방편일 뿐이다.”라고 설하셨다. 여래는 실제로 멀도하지 않았으나 의사가 자식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죽었다고 알린 것처럼, 선근이 얕고 오욕락과 어리석음과 텁착에 물들이 부처님 만나 뵙기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으로고 교만한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멀도를 보이신 것이다.

상 징	비 유
부처님	의 사
삼독(삼승)	독 악
계·정·혜	해독악
방편 열반	죽 음
일불승	완 치

### 3. 마무리하는 말

“제법이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적멸한 부처님 상이니, 불자가 이 도리를 깨닫기만 하면, 깨달은 그 즉시 부처를 이룬다(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佛子行道已 來世得作佛)”고 했다. 적멸寂滅은 니르바나(nirvana) 즉, 열반涅槃을 의미하지만 법성法性이 청정하여 본래 적멸한 것을 실상實相이라 한다. 생사生死하는 인과因果를 멀하여 다시 미혹한 생사를 계속하지 않는 적정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선가귀감」에서는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다면 이것은 참이 아니다. 마음이 본래 고요한 것임을 알아야 이

것이 참 열반이다.”라고 하였다. 이 사바세계가 적멸이고 마음이 있는 그대로가 열반인 것이다.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오직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신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깊은 지혜인 불지견佛知見을 열어 보이고 깨달음의 길로 들게 하시려고 세간에 오신 것이다[開示悟入].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법을 설하셨으니, 이 가르침도 일체 중생을 부처님의 경지로 인도하는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모든 중생은 여러 부처님을 따라 섬기며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받들어 듣고는 그 법대로 실천하여 마침내 최고의 지혜인 일체 종지를 얻게 된다. 이것을 일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무상정등정각 無上正等正覺]라 한다.

『법화경』은 대승경大乘經이며 일승경一乘經으로서 부처님의 설법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축생, 여인, 악인 등 특정한 계층이 아닌 일체 중생이 불성佛性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지해서 평등하게 성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 아름다운 날들

조미향



사라져가는 모든 풍경들은 눈물겹다고 했던가? 오래전 그 여름날의 풍경은 눈이  
부시게 싱그러웠다.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 천지가 짙은 녹음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때 나는 자신감에 넘쳐 있던 방송작가였다. 공들여 썼던 단막 드라마들이 좋은 반응  
을 얻었고, 아침 드라마도 꽤 괜찮은 시청율이 나왔다. 나는 좋은 조건으로 장편 드라  
마 계약을 했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다. 작품을 연출할 PD와 조연출이 정해졌고  
우리는 구체적인 작업을 위해  
워크샵을 떠나기로 했다. 경  
치 좋기로 이름난 충북 단양  
이었고 호수 바로 앞 호텔에  
점을 풀었다.

초여름의 시작이었고 호  
수 뒤로 초록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여름날의 풍경을  
감상했다. 그날 오후였다. 경  
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  
버지가 길을 잊어 버리셨다  
는 것이었다. 눈앞이 깜깜해  
졌다. 80대 노인이신 아버지  
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  
년을 혼자 사셨다. 술을 좋아  
하셔서 교직을 은퇴한 후에



도 동료 교사였던 노인들과 함께 꾸준히 술을 드셨다. 알콜로 인해 아버지의 기억세포는 서서히 손상되었던 것이다. 나는 워크샵을 중단하고 혼자 서울로 돌아왔다.

형제들이 외국에 있어 내가 아버지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기억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노인 대학을 다니셨는데 걸핏하면 다른 노인의 신발을 신고 오셨다. 신발이 바뀐 노인은 보호자인 내게 전화해 운동화를 갖다 달라고 하소연했다. 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장편 드라마는 집중하고 몰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신경이 분산되면 작품을 쓸 수가 없었다. 다행히 고민할 필요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드라마가 좀 연기 되었고 사극이 먼저 편성된 것이다.

나는 내가 살던 아파트는 세를 놓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술을 줄이셨고, 예전처럼 하루 한 시간씩 법화경 사경을 하셨다. 잠시 편안한 날들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아버지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셨는데 수술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끔짝없이 누워 지내셔야만 했고, 의사는 아버지가 앞으로도 걸을 수 없다고 했다. 치매 아버지를 모시는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지만, 누워 지내는 노인을 모신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대소변 케어는 물론이고 목욕도 만만치 않은 노동이었다.

아버지는 요즘 세상의 관습대로 요양원에 가셔야 했다. 나는 도저히 누워 있는 노인을 간병할 자신이 없어 아버지를 요양 병원에 모셨다. 요양 병원은 대부분 5인실로 운영이 되었고 한 명의 간병인이 5명을 돌보다 보니 시간이 태부족했다. 제대로 된 간병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소변을 많이 보면 간병이 번거로운 물도 자주 안드리는 눈치였다. 그러다보니 특하면 변비에 걸리셨고 변비에 걸리면 병원에서는 무조건 약으로 해결하려 했다.

기저귀 케어도 위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요로감염에 걸렸다. 감



열이 되면 노인은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의사는 독한 항생제를 쓴다. 그러면 아버지는 독한 약에 취해 하루 종일 병든 닭처럼 잠만 주무신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의 마음은 무너져 갔다. 나는 기도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기도 말고는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늘 일과로 절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듯 했다. 집중 기도를 결심하고 하루 1천배를 시작했다. 하염없이 절 수행을 하다 보니 무성하게 자라나던 번뇌가 걷히고 차츰 훌탕 물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면서 나는 젊은 날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았다. 아버지는 본인이 불교신자라고 내 세운 적은 없었지만 삶 자체가 자비보살인 분이셨다. 국어 교사로 일하셨던 아버지가 평생 애쓰셨던 일은 단 한 가지였다. 가난한 학생들을 장학금과 연결해 그들이 대학에 가도록 돋는 것이었다. 교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현장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 하셨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다. 왜 아버지는 서울 대학을 나오신 분이 저렇게 야망이 없을까 싶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였다. 방송작가라는 직업을 통해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취재했다. 성공한 사람도 만나보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취재해 보았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다. 아버지 정도의 인격을 갖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이기심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은 작은 이익 하나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아버지를 떠올린다. 아버지는 작은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 앞에서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분의 마지막 여정이 요양 병원이란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내 부모를 외롭게 돌아가시게 한단 말인가? 나는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두고 아버지를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나왔다. 집으로 모시고 왔지만 그 다음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대소변 케어도 힘들었지만 환자 목욕은 정말 힘이 들었다. 커다란 시트에 아버지를 눕히고 요양 보호사와 함께 무거운 시



法滅生則滅則識  
時佛滅取則大滅  
大於生滅受入識  
百天滅取滅滅滅  
萬人則滅受大則  
億大老則滅入名  
那衆死有則滅色  
由之憂滅愛則滅  
他中悲有滅觸名  
人說苦滅愛滅色  
以是惱則滅觸滅

트를 들고 육실로 운반을 했다. 목욕 준비부터 운반, 모두 마칠 때까지 3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지칠 대로 지쳐 나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다. 너무 힘이 든 날은 육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도 했다.

그러나…그런데…그렇게… 나는 힘든 시간들을 통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업이 어찌한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평소에 못 느끼던 나의 세세한 부분들이 현미경 들여다보듯 잘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큰스님의 법문을 읽으며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

스님은 편리함과 풍요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옛 조사 스님들의 수행법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분이었다. 도량의 온갖 농사와 축대 쌓는 일까지 힘든 울력을 수행으로 하셨고, 저녁엔 참선으로 공부를 이어가셨다. 스님께서는 늘 수행과 일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 간병을 수행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관점을 바꾸고 나니 몸은 힘들었지만 내 삶은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그렇다. 아버지는, 나의 업을 닦아 주시기 위해 오신 부처님이었던 것이다. 급한 성격의 업으로 천방지축 날뛰던 나를 차분히 다듬어주기 위해 오신 자비보살이었다. 환자 간병이라는 힘든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디 어느 곳에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나 자신을 참회할 수 있었을까?

도자기가 쓸만하게 구워지려면 3000도의 불가마를 견뎌내야 하듯, 나는 내 앞에 온 힘든 일을 고스란히 버텨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여유였다. 아버지와의 3년 7개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지난해 겨울, 아버지는 주무시듯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아버지를 바로 병원으로 모시지 않고 밤새도록 염불을 들려 드렸다. 아버지의 얼굴은 맑고 편안했다.

나는 큰스님이 계시는 절에서 아버지의 49재를 지냈다. 경북 성주의 산골짜기에 있는 도솔암이란 곳이었다. 스님의 영가 법문은 너무도 절절하여 나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아야만 했다. 스님은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니 아버지 마음에도 큰 울림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 오신 자비보살을 편안히 보내 드렸다. 그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이었다. ●



조미향

방송작가. 고려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Bonn대학에서 독일어를 공부했다. 광고 회사에서 10년 일했고 KBS 극본 공모 당선으로 작가 데뷔했다. 작품으로는 'MBC 우리 가쁜 크리스마스', KBS 겨울 이야기, 그 여름의 끝, 그녀들의 봄날, 종이 비행기' 외 다수가 있다.

## 답이 없이 답을 찾는 길

– 포교원장 범해 스님 탐방기

정연 上 / 대교과



봄방학 중 사리암에서 소임을 살게 되었다.

서로 다른 고통과 바람을 품고 사리암을 찾는 신도들을 만나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보고 사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신도가 줄어들고 있는 불교계에서 사리암의 어떤 점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를 이어 찾아오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함과 졸업을 앞두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소임의 마지막 날, 물음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한 조각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 조계종 8대 포교원장이신 범해 스님께서는 평소에는 포교원에 계시지만, 찾아뵙던 일요일에는 주지로 계신 서울 개화산 약사사에 계신다고 했다. 꼬불꼬불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오르다 눈앞에 펼쳐진 약사사의 전경에 마음이 탁 트였다. ‘난승지難勝地, 다음은 현전지現前地’라는 보살 십지十地의 단계가 절로 떠올랐다.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 포교원장스님께서는

다소 피곤한 기색이셨지만, 더운 날씨에도 인터뷰 내내 장삼을 수하신 채 어른의 위의를 갖추시어 우리를 대해 주셨다. 어른스님을 인터뷰한다는 긴장감에 뻣뻣한 인사를 드리자 빙긋이 웃으시며 통도사 중강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내가 통도사에서 중강을 하면서 절집 최초로 찻집을 열었어요. 찻집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으로, 40권 화엄경을 간행하고 배포했어요. 그러고도 남은 돈이 있어서, 출가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전법하시고 생활하신 곳을 직접 경험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인도성지순례를 시작했지요.”

이 일은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강당에서도 출업하면 인도성지순례를 하더군요. 지금 운문사 등 지방사찰 승가대학 대부분에서 화엄반 출업여행으로 인도성지순례를 하는 기로 알고 있어요.”

이야기는 자연스레 출가자 감소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

“내가 아까 운문사에 학인이 몇 명이나 물어봤는데, 올해의 경우 출가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큰일이야. 하지만 출가 본의가 자기를 밝히자고 하는 거잖아요. 오래 생활하다 보면 중생 제도濟度도 중요하지만, 출가는 오롯이 자기의 미명을 밝히려 하는 거잖아요. 출가를 권유해도 성정이 바른 사람을 권유해야 하죠. 요새는 사람들이 없어서 출가를 권유하면, 출가할 사람 자체가 없다 그래.”

그저 출가자 수의 감소를 걱정하시는 줄 알았던 스님께서는 출가의 본질을 일깨워주셔서 행자 시절부터 쭉 품어왔던 의문을 질문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다.



출가자 수도 점점 줄어든다고 하셨지만, 학인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행자나 강원 생활 중에 이탈하는 사람도 있는데, 발심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수행정진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다지게 해주는 것도 포교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초심자가 신심이 견고해지기 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퇴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의 때를 셋고 청량감을 느끼고자 출가하는데 제대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포교원의 중심과제죠. 출가하면 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앞으로는 법계가 3급 이상 되기 전까지는 출가의 근본의지를 견고하게 하는데 주력 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 년 동안은 자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교육원에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출가한 이들에게 수행을 먼저 마음껏 하게 하고, 어느 정도 된 연후에 그들에게 전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이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포교를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장스님께서는 십년 동안 자기 공부를 하게하고 전법傳法의 기회를 말씀하셨는데 출업을 앞둔 학인들 중에는 소임을 당장 맡아야 하는 학인이 있습니다.

출가 자체가 나를 밝히는 공부에 뜻이 있는데,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에는 배움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임을 맡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일정 기간 나의 공부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어른스님의 뜻을 받아 소임을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은 세상을 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도외시할 수 없어요. 대승불교의 핵심이 뭐냐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잖아요. 삶 속에서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하고 살핍의 실천인 돌봄을 위해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소임 사는 것을 가지고 득실을 따지면 출가한 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본래 자기 길이라는 것은 신선처럼 앉아 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본래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소임을 살아준다고 생각하면 출가의 본 의미를 잊어버려요.

또 자기의 업을 다 녹이고 제도한다 하는데, 맞습니다. 소임을 보면서 내 업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소임 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싫은 것을 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찾으려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본래 답이 없는 무유정법입니다. 답이 없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임 보는 것에 있어서, 남이 이끄는 대로 인연을 따라 가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인연의 장에서 일어나는 자기 마음의 현상들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찾아봐도 소용없어요. 모든 것이 일어나는 지금 여기의 마음 밭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포교와 소임, 수행이 따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순간순간 드러나는 마음자리를 살펴보는 것이 수행이지 이것을 떠나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매 상황이 공부의 장침임을 깨우쳐 주신 원장스님의 말씀이셨다.

“포교 부분에서 불자들이 적어지는 이유는 불교적 인프라가 부족해서라고 봅니다. 불교를 통해서 의식주 해결을 해야 불자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법 강화를 위해 중앙신도회 외에 <전국여성불자회>를 출범시킨 겁니다. 여성 불자들은 사찰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대표적인 조력자예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고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포교사단도 일반포교사와 전문포교사로 나누어, 신행과 전문성을 고려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세련된 불자라는 개념으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사찰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리라 봅니다.

우리 종현에 보면 종단운영은 사부대중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재가불자 분들이 보조해 주는 역할인데 앞으로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리라 생각해요.”

인터뷰 자리 끝에 원장스님께서 종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다.

우리나라가 불교의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종단이 성립된 지 70년이며 포교의 역사도 50년밖에 되지 않은 점, 승유억불의 조선시대를 지나 불교가 개방된 것도 일제 강점기 때라 법난의 시기를 거쳐 종단적으로 체계화가 된 것도, 타 종교에 비해 늦은 1994년부터라는 점 등이었다.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불교가 부응해 나가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과 함께 불교적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다.

지면상의 한계로 다 담지는 못하지만 포교원도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풋내기로서 종단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스님들이 그걸 드러내 줘야 해요. 그래서 불자들에게 궁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세상에 부처님 법음法音 같이 좋은 게 어디 있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으니까 출가를 했고 내가 느끼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이 기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전달해야 해요.”



출가자수 감소에 대한 걱정을 시작으로 출가의 본의와 불교적 인프라의 확충, 사부대중을 함께 아우르는 불교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스님과 재가자,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분별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 기쁜 마음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포교원장스님께서 바라는 포교의 방향이 아니었을까.

지난 6월 23일 조계사에서 조계종〈전국여성불자회〉 창립법회가 열렸다.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원장스님의 말씀이 실천으로 꽃을 피우시는 것을 보며 어른 스님 말씀의 무게가 고스란히 와닿았으며, 그윽한 수행의 향기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사리암에서의 시간을 반추해본다.

매가 되면 어김없이 하루 네 번 도량을 울리던 기도 소리와 염불을 따라 하며 하염없이 기도를 울리던 신도들.

그분들의 안심安心을 발원하며 도량을 쓸고 닦고 공양을 짓던 사리암 종무원들과 기도 접수를 받았던 나와 도반들.

그리고 중생들의 간절한 마음에 응하시어 소원을 들어주셨던 나반존자님.

그 신심信心의 도량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며 불법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

포교원장스님의 말씀처럼 답이 없이 답을 찾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내딛는 걸음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며, 분명 그 시작이 환희와 기쁨이었음을 잊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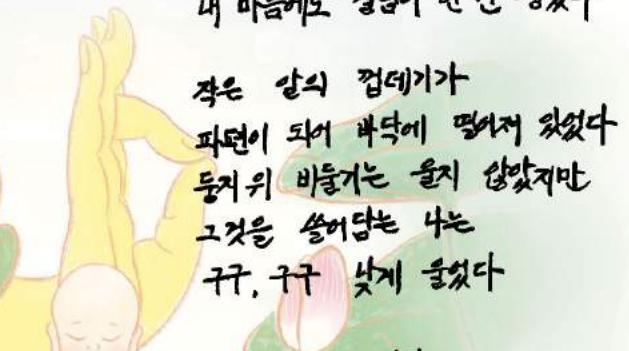
그렇게 걷다 보면 ‘누군가를 불법 안에 사는 삶의 기쁨으로 물들여 갈 수 있지 않을까’



# 피 안 조

彼岸鳥

우현 / 사집반



이른봄

늦지나던 체마밀 한 구석이 요란해  
자세히 들여다 보았더니  
멧비둘기가 살림을 차려 놓았다  
아마도 알을 품으려는 것이라라

매일 아침마다

서의 간부를 궁금해하며  
그 둥지 근처를 쏟고 다보니  
내 마음에도 살림이 한 권 생겼다

작은 알의 껌데기가

파편이 되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둥지 위 비둘기는 울지 않았지만  
그것을 쓸어담는 나는  
구구, 구구 낮게 웃었다

늦은봄, 이른아침

사는 마련없이  
본래 없었던 낫으로 돌아갔다  
체마밀 인연만 동그라니  
사람의 마음속에 둥지를 남겨놓은 채로



## 꿈에 나투신 나반존자님

보문심 / 불자



삼십대 초반에 친정어머니께서 어느 부부가 정월 초하루 차례 지내고 사리암을 갔다 와서 한 해를 가정화목하게 잘 지냈다고 하시며, 같이 사리암에 가지고 권유해서 다니게 된 것이 어느 듯 4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리암 포교사가 되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사리암 다니고 나서부터 제가 바랐던 원願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사리암 다닐 시절에는 지금처럼 사리암 운행차량이 있어서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차 타고 청도터미널 가서 운문사 가는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운문사에서 사리암까지 걸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박 3일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2박 3일정도 사리암 기도참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웃에 사는 형님께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일주일 정도 사리암을 같이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에 다시 사리암에 기도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기 미안했고, 하필 막내딸이 감기가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어 걱정이 되었지만, 이웃 형님의 형편이 급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다시 사리암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리암에서 기도 마친 후 집에 돌아오니 막내딸 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셋은 듯이나아 있었고, 전날 밤 기도 성취되는 꿈도 꾸었습니다. 저는 딸만 셋이여서 딸들이 모두 결혼해서 아들 낳기를 100일 기도 드렸는데, 모두 결혼을 잘 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를 불법으로 인도하는 게 좋다는 것을 이때 배웠습니다.

40년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신발 갑피甲皮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청을 주던 중소기업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 시세로 거의 집 3채

값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돈을 떼여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일 년 뒤 다시 지인이 또 돈을 갖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이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꿈에 어느 할머니가 나타나 “집에 무슨 일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 일 없어요.”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왜 없어?”라며 내 마음을 아는 듯 이야기해서 단돈 만원도 없어 반찬 살 돈이 없다고 막 하소연을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더 큰 일이 벌어 질 수도 있는데, 그만하니 다행인줄 알아라.”라고 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그래, 누가 죽었던가,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해는 학교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여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아 여동생을 데리고 사리암에 갔습니다. 법당에 참배하고 나반존자님 앞에 절을 하는데, 시주를 많이 한 보살님들 몇몇이서 법당에 둘러 앉아 나반존자님이 안 보인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놀란 동생은 절에 다니는 분들이 왜 이러냐며 그날 이후로는 사리암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사리암 다니면서 정성껏 기도 오는 다른 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조심했으며, 나의 모습만 보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리암을 다니면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남을 위한 포교가 나의 기도이고, 나의 아상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면 나반존자님께서 항상 돌봐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가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 주셔서 나반존자님의 가피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 꿈은 지금 여행사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죽는 날까지 사리암 나반존자님 포교하는 것입니다.

사리암 다니시거나 다니지 않는 모든 불자님들!

모두 기도 열심히 하셔서 기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 화두, 오늘의 마음

경운 / 사집과



지대방 문에 기대앉아 토통토둑 뜰방에 떨어지는 벗소리를 듣습니다. 지난밤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지 않아, 아랫재나 못골에 있어야 할 산행과 스님들도 모처럼 함께 하는 휴일입니다.

### 사집의 선자禪子들

반진고리를 내놓고 양말을 페매며 즉답제일 침선針禪스님이 전날 배운 내용을 읊조리자 재담제일 담소스님, 약물남용 투약스님, 습의제일 베릭스님이 열심히 함께 외우기 시작합니다.

더듬더듬 뜻을 되짚으며 한 구절씩 시나브로 외워오던 평화로운 날들은 지나고, 곧 강講을 바쳐야 하는 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혀끝에 점점 익숙해지는 선가귀감은, 나름 지대방 인싸(insider?) 언어로 자리 잡아 자주 인용되곤 합니다.

‘잡화마雜話麼아?’ ‘고선시비마鼓扇是非麼아?’ 등 원문을 인용하여 옥신각신 하다가, 요즘은 응용력이 부쩍 늘어 ‘고성시비마高聲是非麼아?’, ‘종두통에 쓰레기 투입마야?’, ‘몸을 지대지마!(!?)’ 하며 설왕설래 남다른 언어 실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모여 앉아 외우던 일이 찾아들면, 끝도 없이 두런두런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채소, 고양이들 아육이, 보리와 날씨로 시작

한 소소한 스물토크는 경책제일 발참發懶 존자의 여러 활약들, 도반들에게 생겨났던 해프닝과 에피소드들이 난무하다가도 결국에는 마음에 담아 두었던 고민들과 속상하던 일들이 쏟아집니다.

지대방에서 인기 존자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도반입니다.

귀를 잘 기울여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엔 내 생각에 맞추지 않고 가만히 잘 듣고 그 마음에 가까이 하는 좋은 청자聽者가 되리라’는 마음가짐이 무색하게 어느새 제 말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저와는 다르게 다생의심 구글스님, 즉답제일 침선스님은 각각의 도반들에게 딱 맞는 좋은 대화상대가 되어줍니다. 그들은 소소한 고민들도 잘 들어주며 맥락이나 행간을 잃은 중언부언重言復言도 훌륭히 잘 알아듣고, 질문자의 감정선과 이해받고 싶은 그 마음을 잘 가려들어 공감과 위로, 다정한 조언을 해주는 참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 냉장고 파먹기 울력

반가운 공양물이 오면, 울력이나 입선이 끝난 후 먹으려고 냉장고에 잠깐 보관을 합니다.

한두 개씩 미뤄 두었던 공양물은 결국 쌓여 마침내 친절한 안내가 보드에 쓰여집니다.

“냉장고의 OO가 유통기한이 다 되어갑니다.  
각자 번호가 쓰여 진 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지를 한 부반장 스님은 매일 조금씩 일정량을 끼내어 놓고, 각 스님들은 번호대로 나누었던 책임 분량을 해결하며 냉장고의 빈 용량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후 볼식이나 휴일은 냉장고 파먹기 울력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반班 공동 책임으로 남아 있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료·과일·떡 등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도반들이 미처 먹지 못한 개인 음식을 함께 울력을 합니다.

어느 날 “얼른 먹어서 치웁시다.”라는 말을 했다가, 일침제일 옹알스님에게 정중한 부탁을 듣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공양물 인데 급하게, 억지로 먹는 듯한 표현은 그 고마움을 외면하는 것 같으니 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아~ 격한 반성!!! 급 인정 후, 그 말은 지대방에서 이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령제일 와선스님은 냉장고를 채워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지 못하거나 양에 넘치면 미리 도반들에게 “이거 더 먹고 싶으신 분? 필요한 스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누어서 여분의 공양물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용에 맞게 남기고 모두 회향하는 것을 본받고 싶으나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에 대한 탐욕이 있는 저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남아 있는 주스와 우유를 간신히 다 먹었건만, 후원에서 받아 온 요구르트를 또 넣었습니다. 비옴에서 다시 채움으로!!!

### 핫플레이스 종두통

청풍료 한 귀퉁이 입주해 있는 사집반 3칸짜리 살림집은 작은 부엌(종두통), 지대방, 고방(2층 다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종두통은 참고요하고 부드럽습니다. 단출한 살림살이로 비닐

장판 바닥에 냉장고, 온수통, 투박한 나무 선반 위 오종종 모여 있는 머그와 텀블러들이 전부지만, 어쩐지 연탄불을 피우던 부엌이 생각나 정겹습니다.

비가 지나고 햇볕이 뜨거워지니 종두통의 냉장고 앞은 피서지가 되었습니다.

다람쥐가 도토리 숨겨놓은 듯 도반들은 아이스크림과 찬 음료를 찾아 들락거리고, 한 평도 안 될 듯한 서늘한 바닥에 잠시 앉아 와삭와삭 아이스바를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최대인원 3~4명, 짧게 1~2분 길어도 5분쯤? 머물 수 있는 공간이지만 소중한 소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홀로 잠시 앉아 마음을 쉬기도 하고, 어쩌다 여러 명이 마주쳐 서로 보관하는 건강음료·보조제·각종 약들을 보며 안부를 쟁기고, 빠르게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는 짧은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은 사랑방에 모여 소곤소곤 낮은 목소리로 마음을 나누는 풍경을 닮았습니다.

강원에 와 함께 살아온 지 일 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살피며 한 방에서 살아가는 도반 사이입니다.

봄날처럼 다정하고 평안하기도, 거친 마음의 물결에 출렁거리기도, 혹은 모난 마음에 시비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거울처럼 마주 보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도반으로서 동화되어가며 또 스스로 반조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좋은 도반은 수행의 전부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더운 여름 날 소나기에 쑥쑥 자리는 옥수수 대처럼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커지고 익어가길 바랍니다.

사족… 그날 여름비는 다음날 밤우 전동차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딱 적당히 내렸습니다. ☺

## 진심으로 진실하게

공림 / 사미너과

即事而真

‘운문사승가대학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정신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에 입학한 뒤로 크게 달라진 것도,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린 걸까요… 마치 강에서 폭포수와 같은 거센 물결을 만나 속절없이 떠내려가다가 아주 큰 나무를 만나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서 겨우 숨을 고르며 지금 내가 어디 즈음에 와 있는지 가늠하듯, 저를 잠시 돌이켜봅니다.

출가 전 산문 밖에서의 생활은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살았다면, 행자 생활은 분 단위로 일과가 정해져 있었고, 강원 학인으로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초를 다투며 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바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순간순간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내는지 바라보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제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틈이 생겨 망상과 해태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할 것만 같고, 공부와 소임을 병행하다 보면 이번에는 머리 쓰는 게 귀찮아서 공부를 소홀히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느 한 구절을 보고 문득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외제법內外諸法이 진지불실盡知不實하야 종심변기從心變起라”

안팎의 모든 법이 실없이 마음을 죄아 변화하여 일어난 것이라

- 위산대원선사경책鴻山大圓禪師警策

그렇습니다. 모든 괴로움과 힘듦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이 아닌 바로 제 마음작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생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매 수업 시간마다 담임교수사스님께서 “늘 자기 마음을 반조하고 한 생각 돌이키세요.”라고 강조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원에 입학하기 전, 노스님께서는 제게 “나는 강원 생활 4년 정말 즐겁게 보냈다. 경을 배우는데 얼마나 신심 나는 일이니!”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원에서의 4년 생활은 누군가에게는 괴로워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 지금 하는 일과 겪고 있는 일이 너무 괴롭구나’ 하는 망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늘 하던 일도 더 힘들게만 느껴지고 잘 되던 일도 삼천포로 빠집니다. 망상이 헛된 힘만 들고 결과물은 형편없을 뿐이라는 것을 문득 깨닫고 나면,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운문사에서의 강원 생활, 그리고 운문사에서의 치문반 1년은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인 소중한 시간입니다. 강원에 입학하기 전, 강원 생활에 대해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학하고 나니 두렵고 어렵게 느껴졌던 강원 생활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하루하루 보고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운문사는 이제 겨우 1년 반 남짓, 힘들어서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내기엔 아직 짧은 일부만 경험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돌이키면, 어느새 제 안에서 올라오는 허망하고 덧없는 생각이 가라앉고 다시금 더 죄선을 다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일찍이 경봉 대선사께서는 망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에 있더라도, 마음공부를 하여 망상이나 나쁜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저절로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에 비하면 운문사라는 도량은 망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수행 환경입니다. 최고의 도량에서 훌륭한 어른스님과 선배 학인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 매사 진실하고 진심으로 죄선을 다해 제 갈 길을 한발 한발 묵묵히 걸어가는 수행자가 되고자 발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_0\_✿



## 운문, 운문인



지회 화엄반은 타임머신 타고  
천년 신라의 화엄세계 남산에  
다녀왔습니다~



전나무 환귀본처還歸本處 하소서!!!

녹음이 질이가는 여름 운문사는  
비로자나 부처님 개금, 오백나한 개채,  
만세루 단청 불사가 한창입니다.  
불사원만성취 기도중.

'비대면 여름불교학교'

친진 불자님들을 위해 우리 교화부 스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원 스님들의  
여름날 달콤한 휴식~



선망부모,  
일체 유주무주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이열치열以熱治熱~  
더운 여름 탁구로  
건강한 여름~

## 선열禪悅로 시원한 운문의 여름

편집부

회주스님 심어 놓은  
부용화랑 원추리  
솔바람 테리고  
여름저녁 꽃구경



치문반 여름꽃이  
피었습니다.



단오산행 날  
산딸기 밭에서~  
웃음꽃이 활짝~

## 수처작주 입처개진 隨處作主 立處皆眞

진하 / 사교과



2021. 7. 25. 일요일

‘출가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 일까?’

출가한 지 3년. 평소처럼 분주하던 어느 날, 열심히 사는 것만이 출가 생활의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던 제게 은사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겠느냐? 밥 잘 먹고 잘 놀면 되지. 너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문구를 책상에 붙여두고 매일 보면서 살거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시길 바랐는데, ‘수처작주 입처개진’을 새기며 살라고 하시니 막막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隨處作主 立處皆眞. 그대가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그대로가 모두 참이

되어 어떤 경계가 다가온다 하여도 끄달리지 않으니 비록 습기와 오무간업五無間業이 일어날지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로 변할 것이다.”

이는 당나라 선승 임제의현 선사가 대중에게 강설하신 내용입니다. 한 번 읽어서는 의미를 알 수 없어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길 따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며 부처님 경전을 차곡차곡 익히고, 삶 속에서 원래부터 빛나던 고운 의미들을 하나 둘 발견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속가 부친이 위독하여 곧 임종할 것 같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바로 서울 병원으로 출타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날 밤 이부자리에 누워 부친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평안하게

가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부친이란 도대체 무엇인걸까요? 이 제 정말 그분이 세상을 뜨면 그 몸은 간데없이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를 괴롭혔던 고통은 더 이상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라고 여겼던 그 마음도 정신도 더 이상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눈앞에 밝은 창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도 불잡혀 있지 않아서 지금 여기 나와, 그리고 모두와 함께 있는 밝은 허공 말입니다. 그 허공에는 이미 아버지라곤 먼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수한 허공꽃이 제 마음을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이끌리며 혼들릴 뿐이었습니다. 나와 아버지, 모두의 마음이 허공 속으로 사라지고, 사라진 것조차 사라져 버린 원각의 실체는 그대로 공空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수처작주 입처개진과 통한다는 것을 1년이 지나고 원각경을 배우며 알게 되었습니다.

수처작주란, 깊은 내면으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나와 이 세상이 공空하다는 것을 체득하여 더 이상 바깥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니 역설적으로 그 어떤 곳에서도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각경』 「보현보살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종종환화 개생여래원각묘심一切衆生種種幻化 皆生如來圓覺妙心’, 일체 중생의 갖가지 허공꽃(병든 눈에 잘못 보이는 꽃으로, 실제로는 있지 않은 꽃)이 모두 여래의 원각묘심에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글을 쓰는 저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 더불어 이 지면과 하늘의 태양까지 모두가 허공에서 아물거리는 허공꽃이자, 동시에 원각묘심인 부처님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이를 바로 보는 것이야말로 입처개진이라 생각합-

니다.

‘어떻게’, ‘절’ 살 것인가를 고민하여 구체적 방법을 찾던 저는, 사실은 세상일에 끌려 다닐 뿐이었던 것입니다. 은사스님께서는 바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수처작주 입처개진 하라고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다시, 작년 여름의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문병을 간 이튿날이 되자 부친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당시 부친은 마구니들 속에서 고통 받던 중, 수많은 동자승들이 찾아와 건네주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꿈을 꾸고 의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나중에서야 제가 서울로 문병 갔을 당시 운문사의 많은 스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인스님들의 기도하는 마음이 동자승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무소식을 희소식 삼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진정 환幻이 아니었다면, 모두의 마음이 전해져 부친이 폐차하는 기적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체가 환이기에, 견고한 인파마저 뒤바꿀 힘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신기루 같은 세상을 무시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끝이 없는 미래까지 관통하며 중생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서원입니다. 오늘도 이 변화하고 스러지는 땅 위에 서 있는 운문 수월 도량에서 영원히 빛나는 불보살님의 원력을 보고 느낍니다. 부처님과 모든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으로써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이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 산딸기가 전해 준 부처님 자비

삼우 / 사미니파

오랜만에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말라버린 이목소 개울에도 물이 출출 흘렀습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 가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잠시, 단오 산행날에 해가 뜨니 물 걱정은 사라지고 해가 반갑습니다.

단오 산행? 처음 듣는 낯선 단어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단오쯤 해서 가는 소풍이라 하니 기분이 확 달라졌습니다. 소풍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좀 들떴습니다.

상반스님들께서 싸주신 주먹밥과 간식이 든 바랑을 메고 공양 받은 모자를 똑같이 쓰니 유치원생마냥 신이 났습니다. 교수스님을 선두로 여러 어른스님들께 인사드리고 산문 밖을 나서는 발걸음이 즐겁고 가벼웠습니다.



늘 다니던 장군평 모습도 소풍코스에 포함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총총총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에서 내려와 왔다갔다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반기고 며칠 동안 내린 비로 개울물은 힘차게 흐르고 출출출 물소리도 경쾌했습니다. 숲에서 전해오는 향기에 기운이 났습니다. 장군평 뜰 옆에 흐르는 냇물은 언제 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바닥에 깔린 작은 모래 알까지 훤히 다 보였습니다. 그 맑고 투명함에 내 마음도 덩달아 깨끗해지고 번뇌도 함께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개울가에 흐드러지게 핀 붓꽃 위로 벚방울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개구지게 웃고 있는 해태의 모습까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어른 스님들께서 이번 산행에는 산딸기를 직접 따먹는 체험을 하게 해 주셔서 장군평을 지나 소풍장소인 산딸기밭으로 갔습니다. 장군평을 지나니 잘 닦여진 길 양쪽으로 긴 논두렁이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구참 선배스님들께서 직접 이 넓은 논밭을 가꾸고 농사를 지었다니 놀라움에 입이 찍 벌

어겼습니다. 경험삼아 내 살림살이에 도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니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 멀리 눈두렁 뒤로 바위가 보이는 산이 장군바위라고 했습니다.

옛날 화랑들이 이곳에서 말 타고 다니며 훈련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산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 장군바위가 오늘의 코스였을 텐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절벽 타는 재미가 쏠쏠하니 꼭 한번은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운문사 학인들은 고무신을 신고도 한달음에 장군바위를 올랐다고 하니 가히 옛 화랑의 기상을 이어받은 운문인 답습니다.

딸기밭에 도착하니 소임을 살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빨갛게 잘 익은 산딸기를 그릇에 담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산으로 산행 가신 화엄반 스님들 딸기를 따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담임 교수스님께서는 “다 따 먹은 사람은 화엄반 스님 것도 따서 담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네” 대답하고 산딸기를 따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비로 당분은 좀 덜했지만 윤기가 좌르르 흐른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잡아당기니 ‘쓱’ 하고 따졌습니다. 이미 잘 익은 산딸기는 개미가 먼저 먹고 있어, 개미를 밀쳐내고 하나 따 먹으니 내가 고른 것보다 훨씬 달고 맛있었습니다.

한 알씩 따먹으니 먹은 것 같지 않아, 방법을 바꿔 한 손 가득 채워 한꺼번에 씹으니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따먹다가 ‘화엄반 스님 것’ 쟁기라는 담임 교수스님 말씀에 ‘아차 놓쳤구나.’ 소임자 스님들께서 담던 그릇을 받아 산딸기를 따서 담기 시작했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를 때 보다 더 정성껏 따고 있는 내 모습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알이 굵고 좋은 딸기는 이미 내 배로 들어갔고 남은 딸기는 그보다 못했습니다. 뒤늦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른스님이나 웃 차서스님 것을 항상 먼저 쟁겨야 하는구나!’ 사형스님께서 말씀하신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가려야 한다는 의미가 와 닿았습니다. 담임 교수스님의 작은 배려 속에 큰 가르침이 있었고, 일상에서의 작은 쟁김이 곧 ‘부처님 자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키보다 훨씬 큰 딸기나무가 햇빛에 반짝이며 장군바위에 걸쳐져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선사해줬습니다.

발길 닦는 곳마다 그 모습을 달리 보여주고 있는 수목원과 대중의 사랑으로 땀 빠진 산딸기를 안고 돌아오는 마음은 감사와 환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 도량은 어딜 가나 멋진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될 때 내 마음도 자연과 같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단오 산행날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며 단오산행이라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어른스님들께 감사합니다.

부처님 도량 안에, 운문사 도량 안에 있어 행복합니다. ◎

##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륜 / 대교과

오늘 법문에서는 행자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들어온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서산 대사 선가귀감, 그리고 금강경, 화엄경 등 많은 대승경전에 빠짐없이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란 준다 또는 벼린다는 뜻이고, '바라밀'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실천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서 모두 다 버릴 수 있을 때에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시로써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들은 자신이 지은 복에 대해 대가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대가가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째씸해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는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이나 명성, 칭찬 등 욕심을 위해 복을 지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시를 할 때, '내가 주었고 상대는 받았으며, 베푸는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냥 보시일 뿐 '보시바라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보시가 아닌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관찰해야 할까요? 먼저 '나다 남이다, 또는 있다 없다, 좋다 싫다' 등의 상반되는 견해를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남에 대한 분별이 없게 되고 '나와 남, 보시라는 행위'에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는 것을 곰곰히 사무치게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을 때, '동체대비' 즉, 나와 남이 한 몸인 줄 알아 큰 자비심이 생기며,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떠나서 진정으로 보시를 행하는 '무주상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바라밀을 수행하면 육바라밀을 모두 구족한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바라밀 법이 모두 양변을 벼려 중도를 바르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공하여 실체가 없음을 알면,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에 그릇됨이 없고, 그릇됨이 없기 때문에 지켜야 할 '제戒' 조차 없습니다. 계戒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미물도 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지계바라밀입니다. '나와 남'이 없고 '옳다

그러다'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일이 없습니다. 욕을 하고 괴롭히는 상대도 없고 욕을 받는 주체 또한 없음을 알아 조금도 동요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욕바라밀입니다. 마음에 동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끊임없이 수행하며 보살행을 실천하니 이는 정진바라밀입니다. 분별을 버리는 것은 곧 번뇌를 버린 것이니, 번뇌가 없으면 정신이 맑고 정신이 맑으면 저절로 삼매에 들어가니 선정바라밀입니다. 마지막으로 번뇌를 버려 삼매에 들면 자성청정한 본마음이 드리나 지혜가 현전하니 이는 반야바라밀입니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법이 이름만 다를 뿐, 양변을 버려 일체 번뇌를 버린 것으로 근본을 삼으니 '단함만행檀含萬行'이라. '보시바라밀이 만 가지 행을 다 구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대사의 「금강경金剛經」「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에 대한 계송인 '단바라밀보시송檀波羅蜜布施頌'은 앞에서 설명한 보시바라밀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바라밀을 행하는 것은 육바라밀과 온갖 보살행을 행하는 것과 통하니, 이런 보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판단하는 마음이 간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계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별이 없어 '중도'라는 마음도 등져 움직이지 않는 항상한 마음, 즉,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면서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관하면, 생사를 떠난 깨달음의 자리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참선, 염불, 간경, 기도 등의 수행을 통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어 공하다는 것'을 알고 자성 청정한 본마음을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혜가 현전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관찰하면서 보시를 행한다면 점차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중 생활은 보시를 실천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다양한 도반들의 생각을 접하며 본래 옳고 그름으로 가를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적대시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도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소임을 살며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도반을 돋다 보면 도반과 내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모두를 한 몸처럼 알고 배풀며 다만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보시를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유하건데 생사의 바다를 건너다가 중도에 폐하는 것을 일러 '파안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60겁 동안 보시를 행하더라도, 금은보화와 내 몸을 모두 보시하더라도 보시바라밀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깨달음과는 십만팔천리로 멀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본질을 알고 원력으로 바라밀 행을 해나간다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도중에 성취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중스님 여러분, 모두 크고 광대한 원으로 바라밀 행을 잘 실천하셔서 모두 다 함께 성불하여지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남산 돌부처 자비의 들숨, 날숨

서운 / 대교파



운문사 단오절 연례행사로, 저희 화엄반 23명은 2022년 임인년 6월7일에(사정상 음력 5월 9일) 경주 남산을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두 명의 신이 아름다운 강산을 찾고자 해서 발길을 멈추어 남산과 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산은 가히 돌부처와 돌탑을 염주알 페듯 형상화한 지붕없는 박물관 같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나들이 한 저희 반은 천년 세월을 거슬러 가섭불 연좌석이 있던 불국토의 유적지를 참배하며 불국토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넓히고 신심을 장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하여,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원을 하기 위해 이 산을 올랐을까요?

남산에만 돌부처와 돌탑이 200여기가 넘고, 사찰만 150개가 넘으니 가히 보물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 전체가 돌부처와 돌탑으로 가득 차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釤소리가 염원이 되어 신라 불국토에 번졌을까요. 삼국유사에는 ‘사사성장 탑탑안행寺寺星張 塔塔雁行’이라고 하여, 사찰이 하늘의 별처럼 길게 이어져 있고 탑은 기러기떼처럼 줄지어 있는 곳’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발길은 구불구불 제멋대로 휘어진 소나무들이 우리들을 반기는 삼릉을 살그머니 둘렀습니다. 숲과 왕릉이 있다는 것은 이곳이 신성한 곳이라고 중명이라도 하듯, 영산靈山이라고도 합니다.

인간과 염원과 믿음이 자연의 무대에서 만난, 그 첫 번째 인연이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삼릉곡 마애관세음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소리를 듣고 보는 보살의 입술은 살짝 붉은색을 띠고 있어 자연의 꽃과 조화를 이루어 자애롭게 보였습니다. 신라의 석공들은 대자연 속에서 보살상의 얼굴표정까지도 찾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화엄경의, “보살원신시현菩薩願身示現”처럼, 보살의 원력을 몸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애로운 보살상 앞에서 스스로 닦아 행하는 것에 숙연해 지기도 했습니다.

발 닦는 곳마다 절터요, 불상을 만날 수 있으니 한편의 대극락도를 보는 듯 하였습니다. 마애선각 육존불은 불상과 보살상이 하모니를 이루며 오르내리는 형상을 바위면에 스케치하듯 새긴 마애불상입니다. 두 개의 큰바위에 불상과 보살상을 한 자리에서 만나니, ‘삼라만상이 혼자가 아닌 서로를 품고 그 끈으로 연결되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묘한 자연과 생명의 질서를 따라 흘러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삼릉계곡 절터에 남아 있는 석조여래좌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배와 얼굴부분을 복원하

기는 했지만 불상의 얼굴과 몸 전체는 온전하게 보존되어 천년의 바람에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음에 감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불상은 불국사 석굴암 본존불같은 조각양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을 두었다고 전해지는 바둑바위가 있는 곳은, 확 트인 경주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남산의 좌불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위 자체가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가 바위에서 나온듯한 형상으로 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산의 돌부처는 인도나 중국처럼 근엄하고 위협적이지 않고 투박하지만 지극히 인자한 모습으로 그 염원과 신심만큼은 허공을 다 채우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신라의 예술성과 생명과 자연의 무한함을 느끼며, 자연과의 어울림, 나눔을 함께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심라민상 칠진세계의 생명의 근원은 사랑과 자비이듯, 눈 덮는 곳마다 온 세계가 불국토요, 대자연의 진리가 곧 부처라는 화엄경전의 글귀를 눈으로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금오산(남산)의 정상에서 부는 한 자락의 바람을 맞으며 우리의 추억을 장식했습니다. 태양이 높이 뜨면 비추지 아니한 곳이 없듯이, 돌 부처와 텁에도 중생들의 애환을 제도하려는 거룩한 원력이 느껴졌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마주한 용장사곡 삼층석탑과 용장사지 삼륜 대 좌불을 보았습니다. 이 좌상은 조각도 우수하지만 불상을 받치고 있는 대좌가 독특했습니다. 자연 암반 위에 원반 모양의 돌을 층층이 쌓아올린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불상입니다. 용장사와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은 태현 스님이 탑을 둘 때면 용장사 석불이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고 삼국유사에 전해져옵니다. 그러나 그 불두를 잊어버린 부처님, 미륵불로 짐작되는 그 염화미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절절한 염원은 천년이 훌러도 가슴을 적십니다.

홀로 앉은 부처님의 마음을 들여서 어루만져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염원과 마음을 지고 올라와 비로 소 남산의 돌부처님을 만나고 갑니다. 지키려는 것과 빼앗으려는 것의 투쟁, 우리들의 탐진치로 물든 잔상이 불상과 탑의 훼손된 모습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처참함도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놓여 한 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생태계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감탄하며 한 걸음씩 발길을 돌립니다.

마음에 귀를 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잊어버려서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가장 낫은 생명체부터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품고 자비의 들숨-날숨을 쉬며, 신라의 아득한 화엄세계를 뒤로한 채 돌아왔습니다. ♡

〈AI, 일상으로의 초대〉  
동련 전국 지도자  
연수를 다녀와서…

교화부



저희 교화부 외 15명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AI,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사단법인 동련에서 주최하는 제 72차 전국지도자연수회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2020년 이래로 지금까지 비대면으로만 동련연수회에 참여하던 저희 사교반과 치문 사집반 스님들은 처음으로 경주 황룡원에 가서 직접 연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설렘반 기대반으로 도착한 동련 연수회. 황룡원의 빼어난 경관에 감탄하던 것도 잠시, 큰 강당 안 둑근 테이블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봉녕사승가대학의 학인스님들과 전국 사찰에서 온 어린이 불교학교 교사들과의 만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모두다 마스크를 낀 채 약간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 받으면서도 내심 불교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번 연수회의 주제인 〈AI, 일상으로의 초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사회로 전환할 수밖에 없던 시대적 흐름과 현대 기술 발전상에 걸 맞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AI와 4차 혁명에 관한 해인사승가대학 학장 보일 스님의 강연을 시작으로, 가상현실 비중이 더 커진 미래사회상을 그린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시청했습니다. 현실세계의 모든 것이 온라인상의 데이터로 변환되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적극적으로 부처님

의 법을 데이터화 하며 가상세계의 파도 속에도 뛰어 들어 포교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 강의의 요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적응하려면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강연에서는 온라인 시대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관한 서울대 홍영일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불안전한 시대에서 이 예측불가능성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높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교육을 하고 포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염두에 두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온라인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공감보다 ‘연민’, 그리고 ‘자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외국 학자들의 이론을 인용하며 그 이유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여름불교학교 주제인 “자비”와도 연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도 병들었지만 동시에 대대적인 격리로 인해 따뜻한 마음을 나눌 기회가 부족했던 어린이들을 위해 여름불교학교 주제를 정했는데, 이 “자비”라는 주제는 실로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주제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강연에서 우리의 감성을 치유하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 배우며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회를 통해 기술이 발전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비단 어린이 포교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이해하고 보살의 마음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모두가 뜻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회의 내용을 다른 도반들과도 함께 나누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규제가 많이 해제된 상황이기는 해도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끔 관대한 기회를 주시고, 가는 길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끔 깊이 살펴 주시고 챙겨 주신 모든 어른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맨발의 평화 운동가 ‘비노바 바베’』를 읽고

동암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이 책은 올 봄, 여름 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화부스님을 찾아 가면서 시작되었다. 문화부스님은 그림책을 추천하겠다고 하더니 사진집을 한 권 들고 오며 글이 없고 사진이 많다면서 <홀로 걸으라, 그대 가장 행복한 이여>라는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이 책은 비바노 바베 글, 구탐 바자 이 사진으로 비바노 바베의 일상을 찍은 사진들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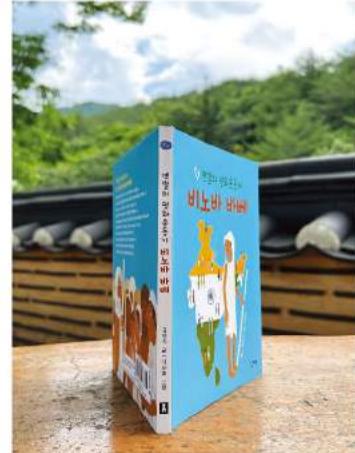
그때 처음 비바노 바베라는 평화 운동가를 알게 되었고 그 책으로 글 쓰는 것이 어려워 다른 책을 찾아보니 리谮에서 출판하는 ‘꿈을 주는 현대 인물선’ 19번째 맨발의 평화운동가 비바노 바베를 찾을 수 있었다

비노바 바베(1895~1982)는 간디의 제자이자 간디 사상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그와 함께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사회개혁가로 손꼽힌다. 인도 카스트의 최고 계급인 브라만으로 태어났으나 인도의 독립과 가난한 이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가 천시하고 경멸하는 온갖 노동을 실천하며 육체노동자가 되어 평생을 헌신하였다.

모든 사람은 공기와 물과 햇빛을 누릴 권리가 있듯이 땅을 누릴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12년 동안 인도 전 지역(무려 8천 킬로미터)을 맨발로 걸어 다니며 순례하였고 부자들에게 토지 헌납 운동을 펼쳐 400만 에이커의 땅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자활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비노바는 이런 시절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도 나보다 이웃 먼저 나누어 주며, 남들과 함께 나누고, 작은 약속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고 배웠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자리에서도 제자의 지적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자신이 열심히 노



력하여 얻은 땅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었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에도 그들에게 맡겨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제자에게 지킬 수 있는 기회와 노력할 수 있는 체벌 보다는 시간을 주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는 등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다.

또, 비노바가 행차 하면 수상과 지역 유치가 찾아 와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권했지만 항상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 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한결 같은 모습으로 기도와 명상에만 전념하던 비노바는 자신이 설립한 마하라슈트라의 브라마비디야 만디르에서 옷 두세 벌과 컵 한 개, 밥그릇 한 개만을 가진 삶을 마감하였다. 인도 최고 계급 브라만이었지만 직접 일하며 천민들이했던 똥오줌 치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

제일 낮은 곳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비노바 바베의 거룩한 일생을 만날 수 있다.

비노바는 1923년~1942년 사이 인도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5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는데, 그동안 그는 진정한 아쉬람 생활을 체험했다고 말한다. 무소유 서약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씻고 먹고 일하고 잠자고 일어나고…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규칙적인 삶, ‘미각의 절제’ 또한 매일 실천, 사색과 성찰의 시간, 그럼으로 감옥 안에서도 아쉬람 삶의 영적인 수련이 계속 이어졌다고 말하는 비바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침구, 따뜻한 잠자리, 무소유를 주장하지만 너무 많은 소유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고 반성한다.

위인들 그리고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 좋은 작은 습관 하나하나 바꾸는 것을 공부의 시작으로 여겼다. 예를 들면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하는 사람치고 효도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 공양하고 싶어도 형편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는 변화하지 않는다.

작은 미소 한 조각, 고운 말 한마디, 함께 기뻐하는 마음 같은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을 것이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을 여든 먹은 노인  
도 고치기 힘들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정말 작  
은 부분부터 나의 잘못된 습관 한 자락씩 고치  
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책은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고, 수행이  
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며, 단지 할뿐이라  
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주었다. ☺



## 모든 중생은 우리의 다생부모 多生父母이다

전대미문의 질병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산불,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전 세계 인류가 당한 처참한 고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시점에 봉행된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는 지구촌 인류가 나와 한 가족임을 자각하고 탐욕과 욕심을 비우면 모든 갈등과 대립이 사라져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기에 충분했다.



운문사에서는 지난 6월 12일 부산 영도 아미로 공원에서 봉행된 ‘국제무차수류천도대법회’에 다녀왔다. ‘무차대회無遮大會’라는 것은 승속, 귀천, 상하上下(노소老少)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불보살에서 사람, 아귀, 축생, 지옥중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법회를 베푸는 것이다. ‘수류재水陸齋’는 물과 물에서 외로이 떠도는 모든 영혼들에게 평등하게 시식施食을 베풀어 영혼을 천도하는 것으로 무차대회와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불법을 전하는 의식이다.

이번 천도대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13,14대 종정을 지내신 진제 대종사께서 전 세계 코로나 19 희생자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을 천도하고 세계평화와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봉행한 법회였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전 세계 1500만 영가들의 위패를 세계 각 국기와 함께 불단에 봉안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대형 산불과 홍수, 지진 등 질병과 전쟁,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영가를 기리는 위패도 아미로 공원 전역에 봉안해서, 전 세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였다. 또한 법회의 영가 위패 동참금 및 후원금 전액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국내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회향했다고 한다.

부산불교영산재보존회의 수류의식으로 문을 연 법석은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불교 합창단연합회의 추모공연 등의 장엄한 의식이 이어지며, 천도대법회 본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상좌부스님들과 티베트 스님들의 평화기원 찬TINGChanting과 인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대사들의 추모 및 13개국 다문화 청소년들의 헌화 등에서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세계인이 함께 참여해 전 세계 희생된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천도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국제적인 법회임이 실감

났다.

이날 중명법사이신 진제 대종사는 법어에서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전 지구촌이 한 집안이요, 온 인류가 나와 한 가족이며 형제, 자매입니다. 여기에 무슨 탐욕이 있으며,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눈을 크게 뜰 때 지구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은 사라지고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라고 기원했다.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체계화된 불교 추모의식이 부산의 오륙도에서 태평양을 거쳐 오대양 육대주로 퍼져 고통스럽게 회생되신 고혼들을 부처님의 가파력으로 위로할 수 있음에 불교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드라망 그물처럼 서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오늘 날 발생하는 코로나 질병이나 전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만 도취하여 인간 내면의 정신 세계는 등한시 하고, 오직 물질과 편의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인간끼리 서로 무한경쟁하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스스로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고 파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전대미문의 질병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산불, 홍수, 지진 등 의 자연재해로 전 세계 인류가 당한 처참한 고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시점에 봉행된 국제무차수류천도대법회는 안타깝게 회생된 전 세계 영가들을 시기적절하게 추모하고 천도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지구촌 인류가 나와 한 가족임을 자각하고 탐욕과 욕심을 비우면 모든 갈등과 대립이 사라져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기에 충분 했다.

『부모은중경』에 부처님이 아난과 함께 길을 가다가 부처님이 마른 뼈 무더기를 향해 오체투지 하는 것을 보고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과 인간세계의 스승이시고 자비로운 아버이신데 어째서 마른 뼈에 예배하십니까?” 하니 부처님께서는 “이 한 무더기의 뼈가 혹시 나의 전생, 오랜 조상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니라. 다겁생래로 윤회를 하면서 누구나 부모자식, 형제자매의 인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다.”

하시며 부처님께서는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이 다생부모였다고 한다. 『부모은중경』의 부모님의 10종 대恩은 차치하더라도 부모 없이 우리가 존재 할 수 있겠는가? 나를 낳아 준 부모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내가 편안할 수 있을까?

『불설우란분경』에 목련존자는 지옥에서 아귀의 고통을 겪고 있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자일自恣日에 여러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승려에게 갖가지 음식과 과일을 지성으로 공양하여 어머니를 제도했다.

음력 7월 보름은 우란분절, 백중일이다. 목련존자처럼 지옥에 계신 어머니를 구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지구촌 모든 중생이 우리의 다생부모임을 깨달아,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모시고 공경해야 할 것이다. ◆



▲ 금란방禁亂榜



▲ 국제무차수류천도대법회



▲ 국제학술대회



▲ 여름철 결계 포살



▲ 부산지역 포교사단 법회

## 운문소식

- 5월 28일 여름철 개학공사 및 죽비전달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7일 단오 신행이 있었습니다. 화엄반 스님들은 경주 남산 불교유적을 순례하였습니다.
- 6월 11일 ~12일 제72차 동련 전국지도자연수회가 경주 황룡원에서 'AI시대, 일상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은광 교수 스님과 학인스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6월 12일 부산 영도 아미로 공원에서 봉행된 '국제무차수류천도대법회'에 일진 윤주스님, 영덕 학감스님, 학인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6월 16일 여름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화엄반 스님의 남산 순례와 사교반 스님의 동련 연수회, 치문반 스님의 단오 산행에 대한 소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 6월 17일 안양 한마음 선원에서 묵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기념으로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의 주제로 개최된 국제 학술대회에 교무스님 인솔 하에 대학원생 스님과 화엄반 스님이 다녀왔습니다.
- 6월 24일 비로자나 부처님 개금, 오백나한 개체, 만세루 단청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불사 원만 회향 기도가 매일 비로전에서 봉행되고 있습니다.
- 6월 25일 여름철 법공양이 있었습니다.
- 7월 1일 차례법문이 저녁 예불 후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법사스님 : 화엄반 성륜, 자우 스님, 사교반 진하 스님, 사집반 덕운 스님)
- 7월 2~4일 선정 염불강강사스님의 3일간 각 반 염불 특강이 있었습니다.
- 7월 8일 여름철 결계 포살이 진광 학장스님을 단주로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7월 9일 부산지역 포교사단 '생명나눔팀'에서 국수 및 다과 등 점심 대중 공양을 올린 후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웅전에서 법회가 있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 7월 15일 저녁 예불 후 대중스님들은 부용화, 원추리 꽃구경을 하였습니다.
- 7월 16일 고하부 스님과 각 반 학인스님들이 경주 대자원 법회에 다녀왔습니다.
- 7월 18일 동학사에서 열린 교우회에 진광 학장스님을 비롯한 교수스님들께서 다녀 왔습니다.
- 7월 24일 <ZOOM으로 만나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자비왕을 뽑아라'라는 주제로 회성당에서 2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찬불가, 율동, 퀴즈,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 8월 2일 여름철 마지막 자자 및 방학공사가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8월 3일 여름 방학일입니다. 9월 13일 개학예정으로 방학기간은 42일간입니다.

## 도와주신 분

- 포교원장 범해 스님      • 재단법인 종도      • 남해 수미정사
- 경림사      • 송암사      • 하옥희      • 조정일(대인경)      • 배종옥
- 정해옥      • 이정숙      • 조서영      • 한기듬      • 흥성숙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

막위자용난득견 莫謂慈容難得見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 뵐옵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불이기원대도량 不離祇園大道場 기원정사 대 도량을 떠나지 않고 계시네  
허공경계기사량 虛空境界豈思量 허공의 경계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오  
대도청유이罡장 大道清幽理更長 대도가 맑고 그윽하여 진리가 더욱 길어지도다

- 운문사 비로전 주련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시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시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통권 제160호·2022년 7월 29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도현 / 편집위원·대검, 해탈향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도현(보리수 꽃) / 삽화·은광, 도영, 현밀, 진하,  
경운, 도선 /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